

(붙임 3)

사 진 자 료



액주름 | 경기도박물관 소장

조선의 9대 국왕 성종의 증손인 선성군_{宣城君} 이흠_{李欽}(1522~1562년)과 그의 어머니인 기성군부인_{箕城郡夫人} 평양이씨_{平壤李氏}(1502~1579) 묘에서 출토된 것으로, 모시로 제작된 홑 액주름



모시저고리 | 경기도박물관 소장



모시보자기(홀보) | 국립고궁박물관 소장

청색 마직물 두 쪽으로 구성된 홀보이며, 보의 대각선 방향 두 모서리에 끈이 달려 있음



『기산풍속도첩』中 「직기織機」, 「목위포호木緯炮糊」

|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

기산 김준근의 풍속도첩에 나타난 직물 제작 과정 모습

「직기」는 여인이 베틀에 앉아 직물을 짜는 모습을, 「목위포호」는 모시매기 과정을 그림



한국의 베틀 | 방연옥 보유자 소장
베틀은 씨실과 날실로 옷감을 짜는 기구



백모시 | 방연옥 보유자 제작
백모시는 생모시를 표백한 것을 말한다.
국가무형문화재 제14호 한산모시짜기 방연옥 보유자가 2016년도에 제작



염색 도구들(일본) | 스즈키보쿠시기념관 소장
일본 모시에 무늬를 만들 때 사용되는 도구들



오지야 지지미 견본책 | 오지야시 교육위원회 소장
견본집은 옷을 주문할 때 고객이 모양을 고르기 위한 책자로,
다양한 도안을 자투리 천으로 붙이거나 묵과 물감으로 그림



에치고 조후 직물 |

오가와 마사요시(小河正義, 에치고조후·오지야 지지미 기술보존협회 회장) 제작
에치고 조후는 모시풀로 만든 마직물로 통기성이 뛰어나고
땀을 잘 흡수해 무덥고 습한 일본날씨에 적합함



오지야 지지미 직물 | 오지야시 교육위원회 소장
오지야 지지미는 표면에 잔주름이 있는 것이 특징으로
사락사락한 감촉이 더운 여름에 알맞음



에치고 조후 카타비라 | 스즈키보쿠시기념관 소장

카타비라帷子는 안감을 대지 않은 얇은 얇은 여름옷을 말하며
에치고 조후 직물로 제작한 카타비라는 통기성이 뛰어나고 땀을 잘 흡수함